

인도그림기행 40
그림·글 이호신

佛光이 온누리 비추니...

“우리는 돌아가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이제 무사한 순례로 모두 무위법(無爲法)의 만선(滿船)에 올랐습니다. 이 인연의 소중한 각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일행 중 가장 연장자이자 순례 단장이시기도 한 조홍식 박사님의 말씀은 모두들 숙연케 했다. 새벽 5시. 이름도 사랑스러운 ‘사랑코트’.

그 전망대에 오르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가 펼쳐진다는 말의 설레임속에 일행은 캄캄한 산길을 오른다. 어둠속 초행길을 각자 더듬고 올라가는 하늘엔 반달이 내내 따라오며 길섶을 살펴준다. 또한 밤 하늘에 도는 가물거리는 마을의 불빛들, 지상과 우주가 모두 어둠속에 빛을 토하고 있다. 제법 써늘한 기온이건만 등반의 긴장은 외려 짝을 찢게 하며 오르는 길.

여명 속에 하나 들쭉 깨어나는 히말라야의 산마을. 여인들이 물을 길기 위해 이마에 띠를 두른 통지개와 물통을 들고 오르내린다. 어깨띠와 이마띠 중 어느 것이 더 신체적으로 합당한 것일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풍습은 몇 해전 아프리카 마사이족들이 이마띠로 나무짐을 나르던 민남에서부터 일어난 의문이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143×74cm).

밝아오는 하늘 지붕 아래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의 새날)

지 아니한가. 따라서 행운을 기대하며 인적 드문 벼랑 끝 돌담아래 화첩을 펼쳐놓고 먹을 갈며 한없이 하늘 지붕 히말라야를 바라보는 순간은 마치 심신이 허공에 떠있는 것 같다.

그렇게 가슴 조리며 기다리는데 히말라야의 맑은 편에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전망대로 뛰어 올라가 보니 검푸른 창파같은 구름창을 뚫고 태양이, 붉은 해가 마침내 돌아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듯 해가 장엄한 하늘지붕을 비추기 위해 반대쪽에서 솟구치니 히말라야는 태초부터 새날의 햇살로 살아나는 운명을 지니온 산인 것이다.

사랑코트 전망대에 오른 모두의 사랑이 합쳐져 ‘하늘 문’을 열게 하는가. 해가 솟아오르자 어느 영상처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맥을 가로막던 구름층들

이 하나 둘 피리를 달고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오늘의 행운이다.

오! 안나푸르나(Annapurna). 해발 7555m에 이르는 설산(雪山)의 위용은 산 아래에 걸린 운무로 인하여 더욱 신비롭게 새날 새 세상에 드러난다. 그런데 실상 피라미트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른 정상은 마치푸차레(Machmapuchre, 해발 6993m) 봉우리로 시각상 더 높게 보이는데 ‘물고기 꼬리’라는 뜻으로 정상에 올라 보면 형상이 꼭 그렇게 보인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어쨌든 정상인 안나푸르나 제 3번 봉우리를 중심으로 좌우에 제1, 제2, 제4 봉우리가 양 날개를 펼치듯, 하늘 지붕의 용마루가 되어 공간적 없이 펼쳐지고 있다. 그 산허리를 맴돌다 내려온 봉우리 아래로 구불거

전생에 공덕 쌓아야 볼수있다는 히말라야
칠순 어른들의 등반 열정에 외경심 절로
안나푸르나에 펼쳐진 사바세계 감동의 물결



히말라야 산마을(28×40.5cm).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되었습니다!

이미 3만명의 불자가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無比스님(前범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 『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동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품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의 특징

-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품.
-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을 첨부하여 내용 파악이 용이함.

구입방법

- ① 특가 : 전 12권 220,000원
 -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③ 송금방법 : 아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십시오.
-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계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계승
농협 053-02-109450 윤계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계승

도서출판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민족사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E-mail : minjoksa@chollian.net